□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5)

2000년대를 향한 한국정보과학회

한국과학기술원 조정완*

1. 정보과학회 4반세기의 회고

한국정보과학회가 창립된지 벌써 4반세기가 되었다. 학회의 창립시부터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몇사람 중의 하나로서 평가할 때 우리 학회야말로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과 내실이 균형있게 발전한 대표적인 학회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외형적으로 볼 때 회원수가 5,000명을 넘는 거대한 학회로 발전한 것이다. 초창기 100명도 안되는 회원으로 학회가 발족하였는데, 정보과학회의 설립은 우리나라 대학들에 전산 및 이와 관련된 학과를 설립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정보산업이 태동하여 정착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학회는 70년대 초까지는 우리 나라에 존재하지도 않던 정보산업을 태동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으로의 vision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보산업의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학회장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안정적인 사무국을 두는 것이었다. 마침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근무하던 이용택 사무국장을 영입하게 되었으며, 사무국장의 주도하에 실무 직원도 확보하였고, 구의동 전철역 부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주하게 되었다. 사무실을 확보하고 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사무국에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 보니 사무집기뿐만 아니라 가구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학회 예산으로 새로 마련하자니 역부족이었다. 결국은 회장단과 사무국장의 노력으로 사무실 가구와 사무기를 기업에서 기증받아 현판식을 갖고, 회원들을 초청하여 입주 축하 파티를 가졌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감개 무량하다.

학회의 내면적인 발전은 무엇보다도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평가된다. 학술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 논문지의 발간과 각종 학술대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논문지 발간의 경우, 본인이 학회장으로 취임할 때에는 정보과학회지 하나만 가지고 학술논문과 기술해설 및 기술보고를 모두 다루었고, 그나마 계간으로 간행되었다. 물론 논문의 편수가 모자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학회지 발간비용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이었다. 따라서 자연이 학술 논문의 경우 논문 제출에서부터 발간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회원들이 불만이 컸었다. 본인은 회원에 대한 가장 큰 봉사는 제출된 논문의 신속한 발간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학술 논문은 신속히 발표되어야만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회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제출 논문의 수가 급증하여 계간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우선 학술논문과 기술보고 및 기술해설 논문을 분리하여 각각 정보과학회 논문지와 회지를 간행하였으며, 이들을 격월간으로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예산상의 무리는 있었으나, 적극적인 광고 유치로 비용을 충당하였다.

학술대회 및 각종 세미나 역시 지금은 춘계

*종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6대 회장

및 추계 학술대회 이외에도 각 연구분과위원회별로 다양한 학술대회를 년중 수시로 개최하고 있지만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양대 학술대회 이외에 순수 학술대회는 그리 많지 못하였다. 학술대회의 다양성은 연구분과 위원회 태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최초의 연구분과 위원회는 본인이 회장시에 설립된 데이타베이스 연구분과위원회로서 그 이후 다양한 분과위원회 및 지부가 설립되었다.

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학회의 사업으로 제1회 정보산업리뷰 심포지움을 개최하기 위하여 산업계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던 일, 학생회원들의 논문발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논문 경진대회 사업을 제도화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방법을 설정하는데 고심하던 일, 정보과학회 15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편찬위원들과 수개월을 분주하게 지내던 일, 그리고 정보과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라는 정보과학 분야 최초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일 등을 회고하면 본인이 그 시절에 학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된다.

2. 2000년대의 한국정보과학회

우리 학회의 외형적인 성장과 내실있는 국내 학술활동은 우리 회원 모두 자축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정보과학 관련 학술진흥을 통하여 정보산업 기술인력의 양성과 정보산업의 토착화와 발전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역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우리 학회의 발전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2000년대의 정보과학회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회가 세계화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 학회는 국제 정보처리 연맹(IFIP)의 회원이고, 미국의 IEEE와 ACM과 제휴협정을 맺고 있으며, 근년에는 우리 회원의 국제학술대회에서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IFIP Congress에 우리 학회의 대표가 참석한 것은 두세 차례에 지나지 못하며, 각 working group에서의 활동도 매우 미진하다. 심지어 본인이 최근 IFIP 관계자로부터 한국정보과학회는 회비를 내면서도 Congress에 조차 참가하지 않으니 이상하다며, 역할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IEEE 및 ACM과의 제휴도 우리는 충분히 이를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교수들도 해외출장비 때문에 IFIP Congress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IFIP의 공식 모임에는 우리 학회의 회원을 적극 참가토록 권유하고, 각 working group에도 해당 연구분과 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EEE 및 ACM과의 제휴도 될 수 있으면 학회 및 학회 산하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이들과 공동 혹은 협력으로 주최하기를 제안한다.

영문판 학회 논문지의 발간 등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회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이제 우리 학회는 그 규모가 커져서 학회본부 차원에서의 사업의 추진은 관리상 무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앙집중식 관리가 어려운 규모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큰 규모의 몇가지 사업만 본부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관련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적인 면에서도 기업으로부터의 후원금 혹은 광고를 확보하는데 학회 본부와 연구분과 위원회와 다소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후원금이나 광고 확보를 위한 노력은 본부나 연구분과위원회가 공히 하되 본부는 오버헤드로 운영하고, 나머지 집행은 연구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면 불편한 관계를 없앨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회 회장 등의 선출문제이다. 이미 학회의 회장은 매후에서 경선체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경선을 양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장 후보는 회장단 후보를 구성하고 학회 운영계획을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투표는 지금과 같이 회장 선출인단에 의한 간선제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는 정보과학 관련 학술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정보과학 관련 학과의 발전과 우수 기술인력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정보산업의 토착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우리 학회는 현재의 성숙된 정보산업 관련 대학 교육과 발전된 정보산업 환경하에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학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판단하여 학회의 발전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학 및 산업에 2000년대의 vision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97 전산교육 워크샵 ●

- 일　　자 : 1997년 6월 27일
- 장　　소 : 전주대학교
- 주　　최 : 전산교육연구회
- 문 의 처 : 전주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심동희 교수
  T. 0652-220-2523